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영암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농가·소비자 상생 기대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이 지난 18일 신북면 장산리 686-1번지에서 문을 열었다.

이 날 개장식에는 진동평 군수를 비롯한 조정기 영암군의회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농업영암군자부장, 신북면 기관·사회단체장,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조합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신북면 장산리 686-1번지(국도13호선)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규모는 135.34㎡로 1994년 4월에 사용승인된 (구)농산물판매장을 준비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해 리모델링공사

를 실시했다.

군에서는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위탁운영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9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두 차례의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나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만 운영 신청서를 냈다. 또한, 작년 10월 22일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을 허가했다.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으로 지역 영세농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로컬

푸드 회원 농가들이 생산한 신선채소를 비롯한 잡곡류, 가공품, 유제품, 버섯류, 과일류, 제빵, 전통차 등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 100여 품목이 입점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을 위탁운영하게 될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박종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해 봤고 전문성을 갖춘 우리 조합이 참여해 다시 찾고 싶은 직매장을 만들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판매방식의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동평 영암군수는 축사를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을 축하하며 개장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시는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영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대도시 판촉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부화과, 고구마, 대봉감, 멜론 등 영암의 농산물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 발전했으며,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학교급식 등에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됐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게 된 만큼 농업과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수목원 자생식물 사진 전시회 개최

주기적인 자생자원 조사 및 전시자료 활용 기대



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완도수목원의 자생식물 사진전'을 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난대 산림자원이 북상함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완도수목원 지역 내 자

원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완도수목원의 자생 산림자원은 1989년 당시 전남대학교 임학과 이정석 교수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6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조사하여 770종으로 관리되고 있던 목록을 지난해 '완도수목원 관속 식물상 표본수집사업'을 통해 국가 표준 식물목록과 비교·정리하면서 765종으로 재정비하였다.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종 보전적용 사업 담당자와 기후변화 조사원들이 완도수목원의 상왕산 일원에서 자생하는 산림자원을 촬영한 자료다.

전시된 산림자원은 복수초 등 자생식물 47개과 85종으로, 복수초 등 자생식물 83종과 완도 및 해남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재배 식물인 긴뚝갈 1종 그리고 임도변이나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귀화식물인 큰개불알풀 1종으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자생식물 목록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으나 완도와 해남 주변에서 자생하는 추분취나 쌍왕산 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의바람꽃 등 18종도 함께 전시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곡성군, 겨울 한파 대비 상수도 기동 서비스반 상시 운영

주말·휴일 없이 수도관·계량기 파손 신속 해결

곡성군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수도관 동결 등 수도물 사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 기동서비스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상수도 기동서비스반은 2개반 8명의 자체 직원과 상수도 긴급 복구 대행업체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주말과 공휴일 주야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며, 소화전과 계량기 등의 동파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과 수도관, 계량기 파손 시 즉각 출동을 통한 신속 복구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기동서비스반 복구관계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그룹 채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출동

및 상황대처를 통한 상수도 민원해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파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는 설연휴 기간에도 매일 6명씩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진도군, 동계 전지훈련지로 급부상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진도군이 복싱, 축구,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부천 육상팀, 서울·광주PC 축구팀을 비롯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 등 럭비, 축구, 복싱 등 4개 종목 780여명(연인원 15,000여명)의 신수가 진도군에서 동계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오는 23일 복싱 국가대표도 동계 전지훈련으로 진도군을 방문할 계획이며, 복싱 국가대표는 2년 연속 진도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진도군이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끄는 것은 축구장과 체육관, 실내 육상 준비구장,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진도군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각종 대회, 선발전 등 전국단위 행사, 협회 등을 방면해 적극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및 홍보를 한 결과이다.

겨울철 따뜻한 기온, 청정 자연생태환경과 영양 밀집인 먹거리도 인기를 끄는 요인 중 하나이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체육담당 관계자는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스포츠 팀들이 진도군을 방문하고 있다"며 "동계 전지훈련기간 중 선수단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군 고서면, '마을 순회 좌담회' 큰 호응

담양군 고서면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을순회 좌담회를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서면은 지난 17일부터 면장을 비롯해 각 담당과 마을담당 직원들 함께 고을리 덕촌마을을 찾아가 군정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마을순회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교신리 하복산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원강리 원유동 마을까지 28개 마을에서 진행되며, 군정 홍보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들은 민원 및 불만사항은 군 업무담당자와 협의의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호 고서면장은 "면사무소와 주민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훨씬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설 명절 '물가 잡는다'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지역 농·수·축·원협, 목업, 외식업, 숙박업 등 직능단체, 대형마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시는 참석자에게 설 물가 안정 대책과 서비스 요금 안정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여수시가 설 명절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민·관 합동

상황실에서는 사과, 소고기, 제수용 생선 등 43개 명절 성수품에 대한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주 단위로 조사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유통업체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 21일부터 농수축산물 지도점검반이 원산지·가격표시 위반, 계량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